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갈등해결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연영란¹ · 양 수²

가톨릭대학교 대학원¹,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²

Effects of a 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on Communication,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Couples

Yeun, Young-Ran¹ · Yang, Soo²

¹Graduate School,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²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 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on communication, conflict resolu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ulticultural couples. **Methods:** A quasi-experimental study with a 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 was used. Participants were sampled from couples registered at 2 local centers and 2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Sixteen pairs each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 or control group. The experimental group received the 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for 120 minutes/session/week for 6 weeks. Data were analyzed using χ^2 -test, Fisher's exact test, Mann-Whitney U test, and t-test for subject homogeneity verification, and ANCOVA to examine the hypotheses. **Results:**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program in experimental group compared with control group. Among conflict solution styles, collaborating and compromising increased and avoiding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program in the experimental group. Competing decreased significantly after the program for wives in the experimental group. Accommodating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in either experimental or control groups. **Conclusion:** Results of the study confirm that 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s are effective in promoting multicultural couples' communic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and causing positive changes in conflict resolution.

Key Words: Culture, Family, Communication, Conflict, Marriage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오늘날 외국인 주민과 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우리사회의 큰

변화 중의 하나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전체 결혼의 10.8%로 2004년 이후 계속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 혼인 비중은 35.9%로, 우리 사회는 급속히 다민족,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 앞으로도 국제결혼은

주요어: 문화, 가족, 의사소통, 갈등, 결혼

Corresponding author: Yang, Soo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505 Banpo-dong, Seocho-gu, Seoul 137-701, Korea.

Tel: +82-2-2258-7407, Fax: +82-2-2258-7772, E-mail: sooy@catholic.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연영란의 박사학위논문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

- This article is revision of the first author's doctoral thesis from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투고일 2012년 7월 5일 / 수정일 2012년 9월 4일 / 게재확정일 2012년 9월 24일

남녀성비의 불균형, 이혼율과 재혼율의 증가 등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성장한 환경과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다른 다문화가정 부부는 결혼적응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Yang, Lee, Ju, & Hyeon, 2008). 이들의 결혼은 충분히 교제할 시간도 없이 결혼중개업체나 지인들에 의해 현지에서 한두 번 만난 후에 이루어진다. 또한 남성이 10년 이상 연상인 경우가 50.9% 일 정도로 부부의 연령차가 많으며(Statistics Korea, 2011), 부부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언어마저 다르기 때문에 상호간의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부는 내국인 부부에 비해 쉽게 갈등이 누적되거나 감정의 대립을 자주 경험하며, 심하면 신체적인 폭력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An, 2006). 다문화가정에 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은 낮은 환경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차이 등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를 경험한다(Ahn & Cho, 2011). 뿐만 아니라 시부모 및 남편과의 갈등, 자녀문제, 인격 무시, 상습적 구타와 같은 가정폭력, 성적 학대 같은 비인간적 처우 등의 인권 침해를 경험하고 있다(An, 2006).

부부간의 갈등이 지속되면 결혼만족도와 삶의 질이 저하되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가정이 해체되기도 한다. 통계청의 이혼통계를 보면, 외국인과의 이혼율은 2002년도 전체 이혼 건수의 0.3%에서 2010년에는 9.6%로 32배 이상 증가하여 결혼이민자 부부의 결혼해체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1).

이혼은 개인과 가족체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사건으로 이혼 당사자뿐만 아니라 자녀의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혼자는 우울이나 불안, 외로움, 분노감, 가족으로서의 역할 상실감, 자녀에 대한 죄의식 등을 경험한다(Butterworth & Rodgers, 2008).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는 정서적으로 우울하고 공포와 불안감, 고독감에 젖어 일상생활에서 무력감과 갈등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고, 불순종과 공격성이 증가하여 학업에도 지장을 초래한다(Jeffrey, Rene, & Scott, 2004). 또한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들보다 행복한 결혼에 대한 자신감과 확신이 결여되고, 결혼 후 이혼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Whitton, Rhoades, Sanely, & Markman, 2008). 차별과 빈곤, 한국문화에 대한 낮은 적응력 등으로 인해 이혼한 국제결혼 이주여성들과 그 자녀들의 경우, 위의 문제점들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서로 적응하여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는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

요하다.

지금까지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연구는 부부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Shin & Yang, 2006), 사회적이거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Ahn & Cho, 2011) 및 결혼만족도나 결혼안정성에 관한 연구(Kwon & Cha, 2006) 등이 있다. 또한 중재연구로는 부부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자아존중감의 변화를 본 연구(Son & Baik, 2008), 발 마사지를 적용하여 부부의 의사소통, 친밀감, 갈등 및 삶의 질을 살펴본 연구(Uhm, 2010)와 부부관계 옹호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대처방식 및 가족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 연구(Yoo, 2010) 등이 있다. 그러나 결혼생활을 만족스럽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인인 부부간의 대화기술과 문제해결 능력(Knudson, Sommers, & Golding, 1980)을 증진시켜 결혼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기술을 학습하는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이 부부의 의사소통, 갈등해결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갈등해결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갈등해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갈등해결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nonequivalent control group pre-post test design)를 이용한 유사실험연구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를 위하여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및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과 경기도의 2개 복지관과 2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0.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중간크기의 효과크기 .50, 검정력 .80으로 산출하였을 때 각 군에 필요한 표본 수는 26명(13쌍)이었으나,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므로 탈락률 30%를 감안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각각 34명(17쌍)으로 배정하였다. 실험기간 중 실험군에서 부부의 개인문제 등으로 1쌍이 탈락하였고, 대조군에서 설문지 응답내용이 많이 누락된 1쌍이 제외되어 최종 대상자는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32명(16쌍)이었다.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사소통, 갈등해결 및 결혼만족도 측정도구는 그 도구를 한국어판으로 표준화하거나 수정·보완한 저자들에게 사전에 사용에 대한 허가 승인을 받았다.

1) 의사소통

부부의 전반적인 의사소통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Bienvenu (1970)의 의사소통 척도(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 MCI)를 Won (2004)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20문항의 5점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항상 그렇다’는 5점을 주었으며, 10개의 문항은 역산하였다. 측정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 간에 의사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Cronbach's α 는 개발 당시 .9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76이었다.

2) 갈등해결

부부의 갈등해결은 Thomas와 Kilmann (1974)의 갈등해결양식 척도를 Kim (2004)이 부부를 대상으로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협력’, ‘타협’, ‘강행’, ‘순응’, ‘회피’의 5개 하부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총 30문항의 5점 척도로 현재 부부 간에 사용하는 갈등해결 방법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항상 그렇다’는 5점을 주었다. ‘협력’과 ‘타협’ 척도 점수가 증가하고 ‘강행’, ‘순응’, ‘회피’ 척도 점수가 감소하

는 경우, 갈등해결의 긍정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78~.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협력 .79, 타협 .74, 강행 .83, 순응 .74, 회피 .73이었다.

3) 결혼만족도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Kim (2007)이 한국어판으로 표준화한 Hudson (1992)의 결혼만족도 색인(Index of Marital Satisfaction, IMS)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부부관계 문제의 정도와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한 25문항의 7점 척도로서 각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전혀 그렇지 않다’는 1점, ‘항상 그렇다’는 7점을 주었으며, 13개의 문항은 역산하였다. 계산 방법은 합산한 점수에서 응답한 문항 수를 빼고 여기에 100을 곱한 후 응답한 문항 수에 6을 곱한 값으로 나누어 점수를 산출하였다. 측정 가능한 점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관계가 심각한 것을 의미한다. 30점 미만은 결혼생활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30점 이상은 문제가 있음을, 70점 이상은 항상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Cronbach's α 는 .9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4. 실험처치

1)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 활용한 Enriching Relationship Issues, Communication and Happiness (ENRICH) 프로그램은 부부관계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세워나가도록 하는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으로 우리나라에는 1998년부터 보급되었으며, 현재 세계 13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부부가 서로 잘 맞는 부분인 ‘관계강점 영역’과 개선이 필요한 ‘성장필요 영역’을 평가한 결과를 중심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성격특성, 커플유형, 결혼만족도, 성격문제, 의사소통, 갈등해소, 재정관리, 여가활동 등의 주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ENRICH KOREA, 2005).

본 연구의 ENRICH 활용 프로그램은 본 연구자가 PREPARE/ENRICH 공식 상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전문 상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결혼과 가족관계 연구소의 PREPARE/ENRICH 상담 가이드에서 제시한 프로그램의 내용을 토대로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6회기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타당도는 결혼과 가족관계 연구소의 부부상담 및 치료 전문가 1인과 정신간호학 교수 1인에게 자문을 받아 검

증하였다.

프로그램의 목적은 부부관계의 사정을 토대로 부부 문제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상호간의 감정이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과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교육과 상담을 하여 부부 간의 정서적 교감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의사소통을 증진시키며, 갈등을 긍정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것이었다.

2)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 진행과정

프로그램의 각 회기는 지난 주 동안의 부부생활과 과제를 점검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며, 각 회기마다 연구자의 교육을 듣고 교육받은 내용을 실습하면서 부부가 서로 토의하고 다른 부부와 자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부부관계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Table 1).

(1) 제1회기

프로그램 진행자를 소개하였고, 프로그램의 내용과 부부관계를 건고히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들이 계획되어 있는지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였다. 또한 행복한 결혼생활은 부부간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내용의 글을 함께 읽고,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서로를 소개하는 위밍업 시간을 통해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도왔다.

(2) 제2회기

부부가 서로의 '관계강점 영역'과 '성장필요 영역'을 찾아 보고 사랑을 되살리는 과정으로서 부정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긍정적인 면들을 확인하고 관계를 세워갈 수 있도록 결혼만족도, 성격문제, 의사소통, 갈등해결, 재정관리, 여가활동 등에 대한 부부 각자의 관점에 대해 서로 토의하도록 하였다. 또한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람마다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부부가 서로 인식한 '관계강점 영역'과 '성장필요 영역' 중 일치와 불일치 정도가 가장 컸던 영역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였다.

(3) 제3회기

자기표현과 적극적인 경청기술을 익히는 과정으로서 '상대방이 보다 자주 해주기를 원하는 세 가지 희망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후, 작성한 희망 사항을 부부가 교대로 나누면서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과 상대방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들어주는 방법을 연습하였다.

(4) 제4회기

부부갈등의 유형, 대화방법, 문제해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시간으로서 부부의 '성장필요 영역'과 관련된 하나의 갈등 문제를 예로 들어 갈등해결을 위한 10단계를 훈련하였다. 즉 토의를 위한 시간과 장소 정하기, 동의하지 않는 항목이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서로의 입장 정리하기, 과거에 시도했거나 실패했던 해결책 쓰기, 가능한 모든 해결책 쓰기, 해결책의 장단점 찾기, 시도할 하나의 해결책 찾기, 부부가 담당할 일 나누기, 성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도한 해결책에 대한 평가와 보상하기 등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연습하게 하였다.

(5) 제5회기

'예산에 대한 황금률: 버는 것보다 적게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고 투자하라'는 모토로 재정 관리에 대한 기술을 익히는 시간이었다. 부부가 함께 가정 수입을 확인하고 실천 가능한 장·단기 재정적인 목표를 세워봄으로써 수입에 맞추어 지출을 규모 있게 정하는 것을 연습하였다.

(6) 제6회기

배우자와의 감정적인 친밀감을 증진시키고 의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여가활동을 함께 계획하였다. '가장 즐거웠던 데이트는 언제였나요?', '함께 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있나요?'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소요되는 시간과 에너지 및 비용이 적당한 것을 부부가 함께 조정하여 목록을 만들고 날짜를 정함으로써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소감을 나누었다.

5. 자료수집

구체적인 자료수집절차는 다음과 같다.

- C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을 받은 후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 서울과 경기도의 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복지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부부 중 연구기준에 적합하고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 남편과 부인 각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부부가 함께 참여하기로 동의한 부부에게 연구참여 동의

Table 1. 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Session	Theme	Contents
1st	Orientation & evalu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verall orientation and introduction of participants · Explain the 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 Pretest · Activity: making nick name
2nd	Identify strength and growth area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plore strength and growth areas · Understand and appreciate personality differences · Develop a more balanced relationship · Reinforce for positive affect and strength each other
3rd	Strengthen communication skill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rain effective communication skills · Activity: make a wish and displeasure list · I-mess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 feel... (Insert feeling word) - When... (Tell what caused the feeling) - I would like... (Tell what you want to happen instead) · Active listening
4th	Resolve conflicts and reduce str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entify and manage major stressors · Resolve conflict using the Ten Step Mod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et a time and place for discussion - Define the problem or issue of disagreement - How do you each contribute to the problem?
5th	Comfortably discuss financial issu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mfortably discuss financial issues · Establish personal, couple, and family goals · Discuss financial planning and budgeting
6th	Spending time toget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y joint leisure? · Develop a stronger friendship · Evaluation of program · Posttest

서를 받았다. 결혼이민자에게 받는 동의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으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 실험군과 대조군의 의사소통, 갈등해결, 결혼만족도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결혼이민자에게 시행하는 검사는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등으로 번역한 것을 사용하였다. 번역의 정확성과 이해도를 측정하기 위해 유학생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상담원을 대상으로 번역된 설문지의 예비설문을 실시하여 결혼이주여성의 언어적인 소통문제로 인한 오류를 줄이고자 하였다. 또한 설문내용이 부부 간의 결혼만족도와 의사소통 및 갈등해결 유형을 묻는 문항으로 부부 간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과 부부 간의 노출에 대한 부담감으로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편과 부인은 각기 다른 공간에서 설문에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설문지를 수거한 즉시 봉투에 넣어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에서 보관하였다.
- 실험군에게는 매회 120분씩, 주1회, 6주간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각 지역 복지관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교육실에서 대상자 부부의 직장 및 개인 일정 등을 고려하여 평일이나 주말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시행되었으며, 부부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동안 보육도우미 1~2인이 자녀들을 무상으로 돌보아주었다. 프로그램은 한국어로 진행하였으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자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통번역사가 통역을 하였다. 통번역사는 자국(베트남, 중국)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며 한국어 4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결혼이주여성의 민원을 해결해 주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었다. 프로그램을 종료한 후 의사소통, 갈등해결 및 결혼만족도를 측정하였다.

- 대조군은 사전 조사와 동일한 사후 검사를 실시한 후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경우 부부에게 2회기의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6.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였으며, 실험군과 대조군의 인구학적인 특성에 대한 동질성은 χ^2 -test와 Fisher's exact test로 검정하였다. 종속변수의 사전 조사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각각의 남편과 부인에 대한 동질성 검사는 Mann-Whitney U test, 실험군과 대조군 부부에 대한 동질성 검사는 Kolmogorov-Smirnov test를 실시한 후 정규성이 확보되어 t-test로 검정하였다.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부부의 의사소통, 갈등해결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는 사전 조사 값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주는 영향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하여 사전 조사 값을 공변인(covariate)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으로 검정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동질성 검정

실험군과 대조군의 일반적 특성, 사전에 측정한 종속변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2. 의사소통

부부의 의사소통은 실험군이 55.2점에서 69.9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변화가 없어 두 군 간에 차이가 있었다($F=66.54, p<.001$). 남편의 의사소통과 부인의 의사소통 모두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49.59, p<.001, F=25.67, p<.001$)(Table 4).

3. 갈등 해결

부부의 협력은 실험군이 18.7점에서 21.0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변화가 없어 두 군 간에 차이가 있었다($F=13.50, p=.001$). 남편의 협력 역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10.85, p=.003$), 부인의 협력은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부의 타협은 실험군이 18.2점에서 20.9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변화가 없어 두 군 간에 차이가 있었으며($F=26.50, p<.001$), 남편($F=21.64, p<.001$)과 부인($F=10.32,$

$p=.003$)의 타협 모두에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부부의 강행은 실험군이 17.0점에서 15.7점으로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변화가 없어 두 군 간에 차이가 있었다($F=7.51, p=.008$). 부인의 강행도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F=5.75, p=.023$), 남편의 강행은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순응은 부부 및 남편과 부인 모두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부부의 회피는 실험군은 21.6점에서 18.5점으로 감소하였으나, 대조군은 변화가 없어 두 군 간에 차이가 있었다($F=35.64, p<.001$) 남편($F=29.36, p<.001$)과 부인($F=11.31, p=.002$)의 회피 모두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4. 결혼만족도

실험군은 39.2점에서 31.8점으로 감소하여 결혼만족도가 증가하였으나, 대조군은 차이가 없어 두 군 간에 차이가 있었다($F=27.23, p<.001$). 남편($F=18.39, p<.001$)과 부인($F=9.53, p=.004$)의 결혼 만족도 역시 실험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able 4).

결혼만족도의 점수별 변화를 살펴보면 실험군이 30점 이상인 대상자가 23명에서 16명으로 21.9% 감소한 반면 대조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Table 5).

논 의

한 가정 안에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다문화 가정은 부부간의 의사소통 문제, 문화적응 문제, 사회적응 문제, 자녀양육 문제 등을 경험하고 있으며, 심화된 갈등은 우울과 불안 같은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과 가정의 해체 등을 유발하고 있다(Kim, 2011). 특히 다문화가정 부부의 문제는 자녀에게 대물림되어 자녀의 사회 적응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Song & An, 2011).

다문화가정 부부의 문제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해 생긴 사소한 오해가 계속적인 의사소통의 장애로 인해 심화되어 갈등을 유발하고 부부 간의 상호이해와 친밀감 교류를 어렵게 함으로써 발생한다(Jung, 2010).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부부관계의 변화는 어느 한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부부가 서로 협력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갈등

Table 2. Homogeneity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etween Groups

Characteristics	Categories		Exp. (n=32)	Cont. (n=32)	χ^2	P		
			n (%)	n (%)				
Age (year)	Husband	< 30	0 (0.0)	0 (0.0)		.500		
		30~39	2 (12.5)	3 (18.7)				
		≥ 40	14 (87.5)	13 (81.3)				
	Wife	< 30	5 (31.2)	5 (31.2)		.393 [†]		
		30~39	10 (62.5)	8 (50.0)				
		≥ 40	1 (6.3)	3 (18.8)				
Religion	Husband	Protestant	6 (37.5)	5 (31.2)		.326 [†]		
		Catholic	2 (12.5)	0 (0.0)				
		Etc.	8 (50.0)	11 (68.8)				
	Wife	Protestant	6 (37.5)	6 (37.5)	.80	.417		
		Catholic	6 (37.5)	4 (25.0)				
		Etc.	4 (25.0)	6 (37.5)				
Educational level	Husband	< College	4 (25.0)	5 (31.2)	.16	.500		
		≥ College	12 (75.0)	11 (68.8)				
	Wife	< College	10 (62.5)	8 (50.0)	.51	.361		
		≥ College	6 (37.5)	8 (50.0)				
	History of marriage	Husband	First	13 (81.2)	14 (87.5)		.500 [†]	
			≥ Second	3 (18.8)	2 (12.5)			
Wife		First	16 (100.0)	14 (87.5)		.242 [†]		
		≥ Second	0 (0.0)	2 (12.5)				
Divorce consideration		Husband	Yes	6 (37.5)	5 (31.2)	.14	.271	
			No	10 (62.5)	11 (68.8)			
	Wife	Yes	6 (37.5)	4 (25.0)	.58	.352		
		No	10 (62.5)	12 (75.0)				
	Wife's nationality	China	3 (18.8)	4 (25.0)		.500 [†]		
		Vietnam	3 (18.8)	4 (25.0)				
Philippines		10 (62.4)	6 (37.5)					
Etc.		0 (0.0)	2 (12.5)					
Type of marriage		Matchmaking agencies	2 (12.5)	4 (25.0)				.331 [†]
		Religious group	3 (18.8)	2 (12.5)				
	Relative or acquaintance	11 (68.7)	10 (62.5)					
Duration of marriage (year)	< 5	4 (25.0)	5 (31.2)	.16	.500			
	≥ 5	12 (75.0)	11 (68.8)					
Children (number)	0	1 (6.2)	2 (12.5)		.500 [†]			
	≥ 1	15 (93.8)	14 (87.5)					
Residence	City	10 (62.5)	10 (62.5)	.00	.642			
	Suburbs	6 (37.5)	6 (37.5)					
Type of family life	Only spouse	3 (18.8)	2 (12.5)		.690 [†]			
	Couple and children	8 (50.0)	9 (56.3)					
	With husband's family	5 (31.2)	4 (25.0)					
	With wife's family	0 (0.0)	1 (6.2)					
Monthly income (10,000 won)	< 200	10 (62.5)	9 (56.3)	.13	.500			
	≥ 200	6 (37.5)	7 (43.7)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Fisher's exact test.

Table 3. Homogeneity for Dependent Variables between Groups

Variables	Categories	Exp. (n=32)	Cont. (n=32)	U or t	p
		M±SD	M±SD		
Communication	Couple	55.2±9.55	54.9±9.14	0.13 [†]	.894
	Husband	55.6±8.78	55.4±9.99	124.50	.895
	Wife	54.7±10.53	54.4±8.49	126.00	.940
Conflict solution style	Collaborating				
	Couple	18.7±3.05	18.2±3.93	0.53 [†]	.597
	Husband	18.4±2.50	18.3±3.11	128.50	.985
	Wife	18.9±3.59	18.1±4.73	118.50	.719
Compromising	Couple	18.2±3.45	17.8±3.67	0.35 [†]	.727
	Husband	18.6±3.46	18.3±3.82	120.00	.762
	Wife	17.7±3.48	17.4±3.56	121.00	.791
Competing	Couple	17.0±3.39	17.4±2.89	-0.48 [†]	.636
	Husband	17.3±3.98	17.6±2.75	130.50	.925
	Wife	16.7±2.77	17.1±3.07	134.50	.805
Accommodating	Couple	17.5±4.05	16.9±2.89	0.60 [†]	.548
	Husband	17.4±3.46	16.8±2.38	107.00	.426
	Wife	17.6±4.68	17.1±3.40	120.50	.770
Avoiding	Couple	21.6±3.26	21.4±3.32	0.27 [†]	.791
	Husband	21.7±3.86	21.6±3.09	126.50	.955
	Wife	21.5±2.66	21.2±3.64	121.50	.805
Marital satisfaction	Couple	39.2±14.32	39.1±14.29	0.63 [†]	.979
	Husband	39.7±16.96	39.4±15.96	127.50	.985
	Wife	38.8±11.64	38.9±12.93	120.50	.777

Exp. =experimental group; Cont. =control group.

† t-test.

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실제로 Kim 등(2010)의 연구에 의하면 결혼 2년 미만 다문화가정의 50% 이상이 가족 상담이나 부부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에서 주로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을 해왔고,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남편들이 생업 때문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어려워 일회성 교육에 그칠 때가 많았다(Jon, 2005).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프로그램이 부부의 의사소통, 갈등해결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부부의 의사소통은 프로그램 후 남편과 부인 모두 유의하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결혼이민자 부부를 대상으로 발 마사지 프로그램을 적용한 후 부부의 의사소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아졌다는 선행연구(Uhm, 2010)와 유사하였다. 부부의 의사소통은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부부관계 증진의 필수요소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외국인 아내에 대한 남편의 가장 큰 불만은 의사소통의 부

족이었다(Jon, 2005).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에 대한 어려움은 부부나 가족들과의 대화를 기피하게 함으로써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과 가족 갈등을 심화시키고 나아가 결혼만족이나 안정된 가정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Uhm, 2010). 본 연구에서는 자기주장과 적극적인 경청을 비롯한 의사소통 기술을 훈련하면서 부부가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상대방에 대해 몰랐던 점을 알게 되면서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알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부부의 의사소통이 유의하게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부부의 갈등해결 방식은 프로그램 후 협력과 타협의 점수가 증가하고 강행과 회피의 점수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 Sin과 Choi (2011)의 연구에서도 의사소통기법, 갈등해결기술 등을 다루는 부부 프로그램이 부부의 갈등해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부부들은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다양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특히 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부인으로서 평등하게 대하기보다는 권위적이고 지시적으로 대하며 한국여자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힘들어했고, 남편은 상대적으로 젊

Table 4. Comparison of Communication, Conflict Solu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between Groups (N=64)

Variables	Subjects	Groups	Pretest		Posttest		Adjusted Posttest	F [†]	p
			M±SD	M±SD	M±SD	M±SD			
Communication	Couple	Exp.	55.2±9.55	69.9±9.71	69.8±1.30	66.54	< .001		
		Cont.	54.9±9.14	54.7±9.79	54.8±1.30				
	Husband	Exp.	55.7±8.77	71.9±11.06	71.8±1.62	49.59	< .001		
		Cont.	55.4±9.99	55.6±10.02	55.7±1.62				
	Wife	Exp.	54.8±10.52	67.9±8.00	67.8±1.95	25.67	< .001		
		Cont.	54.4±8.49	53.8±9.80	53.8±1.95				
Conflict solution	Collaborating	Couple	Exp.	18.7±3.05	21.0±3.83	20.8±0.45	13.50	.001	
			Cont.	18.2±3.93	18.2±4.56	18.4±0.45			
		Husband	Exp.	18.4±2.50	22.0±3.82	21.9±0.75	10.85	.003	
	Cont.		18.3±3.11	18.4±4.42	18.5±0.75				
	Wife	Exp.	18.9±3.59	20.0±3.68	19.6±0.44	3.91	.058		
		Cont.	18.1±4.70	18.0±4.81	18.4±0.44				
	Compromising	Couple	Exp.	18.2±3.45	20.9±3.79	20.8±0.40	26.50	< .001	
			Cont.	17.4±3.55	17.0±3.24	17.1±0.44			
		Husband	Exp.	18.6±3.46	22.6±2.98	22.5±0.57	21.64	< .001	
	Cont.		18.1±3.84	18.5±3.65	18.6±0.57				
	Wife	Exp.	17.7±3.47	19.3±3.89	19.2±0.44	10.32	.003		
		Cont.	17.4±3.55	17.0±3.24	17.1±0.44				
	Competing	Couple	Exp.	17.0±3.38	15.7±3.28	15.8±0.36	7.51	.008	
			Cont.	17.4±2.89	17.3±2.71	17.2±0.36			
		Husband	Exp.	17.3±3.97	16.4±3.70	17.4±0.52	1.91	.177	
	Cont.		17.6±2.75	17.4±2.22	17.3±0.52				
	Wife	Exp.	16.7±2.77	14.9±2.71	15.0±0.60	5.75	.023		
		Cont.	17.1±3.07	17.2±3.20	17.0±0.60				
Accommodating	Couple	Exp.	17.5±4.04	17.6±4.06	17.5±0.55	0.01	.933		
		Cont.	18.5±4.18	17.4±2.95	17.6±0.55				
	Husband	Exp.	17.4±3.46	17.3±2.33	17.2±0.47	0.47	.496		
Cont.		16.8±2.38	17.5±2.22	17.6±0.47					
Wife	Exp.	17.6±4.67	17.9±5.33	17.8±1.03	0.55	.816			
	Cont.	17.1±3.40	17.4±3.61	17.5±1.03					
Avoiding	Couple	Exp.	21.6±3.26	18.5±3.43	18.4±0.34	35.64	< .001		
		Cont.	21.4±3.32	21.2±3.22	21.3±0.34				
	Husband	Exp.	21.7±3.86	18.2±3.99	18.6±0.41	29.36	< .001		
Cont.		21.6±3.09	21.6±3.03	21.7±0.41					
Wife	Exp.	21.5±2.65	18.3±2.89	18.2±0.56	11.31	.002			
	Cont.	21.2±3.63	20.8±3.45	20.9±0.56					
Marital satisfaction	Couple	Exp.	39.2±14.32	31.8±9.12	31.8±1.15	27.23	< .001		
		Cont.	39.1±14.29	40.2±13.65	40.2±1.15				
	Husband	Exp.	39.7±16.96	30.8±8.02	30.7±1.70	18.39	< .001		
		Cont.	39.4±15.96	40.9±14.99	41.0±1.70				
	Wife	Exp.	38.8±11.64	32.8±10.25	32.8±1.51	9.53	.004		
		Cont.	38.9±12.93	39.4±11.81	39.4±1.51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 Measured by ANCOVA with the pretest value as covariate.

Table 5. Comparison of Distribution related to Scores for Marital Satisfaction (N=64)

Subjects	MS (score)	Groups	Pretest	Posttest
			n (%)	n (%)
Couple	< 30	Exp.	9 (28.1)	16 (50.0)
		Cont.	13 (40.6)	13 (40.6)
	≥ 30	Exp.	23 (71.9)	16 (50.0)
		Cont.	19 (59.4)	19 (59.4)
Husband	< 30	Exp.	6 (37.5)	8 (50.0)
		Cont.	7 (43.8)	7 (43.8)
	≥ 30	Exp.	10 (62.5)	8 (50.0)
		Cont.	9 (56.2)	9 (56.2)
Wife	< 30	Exp.	3 (18.8)	8 (50.0)
		Cont.	6 (37.5)	6 (37.5)
	≥ 30	Exp.	13 (40.6)	8 (50.0)
		Cont.	10 (62.5)	10 (62.5)

MS=marital satisfaction; Exp.=experimental group; Cont.=control group.

은 부인의 가출에 대한 염려나 금전사용에 대한 의혹 등으로 힘들어 하였다. 또한 부인은 시부모와의 동거, 나이가 많은 남편과의 세대차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 친정에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친정 식구들이 장기간 함께 체류하는 문제, 부인이 취업하려는 것을 남편이 무조건 반대하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생기는 문제, 남편의 음주습관이나 도박, 외도, 자녀양육 태도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Hong & Chae, 200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갈등문제를 부부 공동의 문제로 지각하여 상호 만족하는 해결책을 찾도록 유도하였다. 이를 위해 상호작용의 양식을 연습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내어 서로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갈등을 처리하도록 하였다. 즉 강행이나 회피와 같은 부정적인 해결양식을 서로 타협하고 협조하는 긍정적인 해결양식으로 바꾸기 위하여 공통의 규칙을 세우고 유지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강행은 부인에게만 변화가 있었고 남편에게는 변화가 없었으며, 순응은 남편과 부인 모두 변화가 없었다. 이는 국내 갈등부부를 대상으로 한 Kim (2004)의 연구나 국내 저소득층 부부를 대상으로 한 Kang (2010)의 연구에서 협력과 타협이 증가하고 강행과 순응 및 회피의 양식은 변화가 없었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와 같이 남편들의 강행이 변화되지 않은 것은 우리나라의 가부장적인 문화의 한계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남편들의 강행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혼만족도는 프로그램 적용 후 남편과 부인 모두에게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는데, 국내 부부를 대상으로 부부관계 증진 집단 프로그램을 적용한 Kong (2005)의 연구에서는 부부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NRICH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부부의 강점과 약점을 평가한 후 강점을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자기표현과 적극적 경청을 통하여 부부의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해결 방법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자 노력하였다. 그 결과 부부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갈등해결 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면서 결혼만족도도 향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프로그램 적용 후에도 여전히 부부관계에는 문제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Hudson (1992)의 IMS는 부부관계 문제의 정도와 심각성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서 30점 이상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프로그램 참여 후 30점 이상의 부부가 23명에서 16명으로 21.9% 감소하였고, 결혼만족도 점수도 39.2점에서 31.8점으로 감소하여 결혼만족도가 향상되기는 하였으나 결혼만족도 척도 점수가 여전히 30점 이상으로 높았다. 그러므로 다문화가정 부부는 언어나 문화적 차이가 큰 만큼 보다 장기간에 걸쳐 부부간의 적응을 돕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과 갈등해결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결혼만족도를 향상시켰으므로, 지역사회에서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유용한 간호중재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적용한 것은 매우 의미 있었으나, 동일한 연구방법을 적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연구결과를 직접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자는 S시와 K도에 위치한 2개의 복지관과 2개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대상자를 모집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하는 데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자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대상자 수가 적어 연구결과를 모든 다문화가정 부부에게 확대해석해서 일반화하기 어려우므로 다수의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갈등해결 하위영역 중 부인의 강행은 감소하였으나 남편의 강행은 변화가 없었으므로 남편의 강행을 감소시키는 데 중점을 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부부의 갈등 정도나 요구도에 따라 2~3회의 단기 프

로그래프와 10회 이상의 장기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개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결 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 부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부부의 의사소통, 갈등해결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의 유사실험연구이다. 본 연구결과, 6회의 부부 프로그램 중재로 다문화가정 부부 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갈등해결 방법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다문화가정 부부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간호중재로 부부관계 증진 프로그램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REFERENCES

- Ahn, J. H., & Cho, J. H. (2011). Psychosocial and cultural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among marriage immigrant women in the Chungcheongnam-do area of Korea.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32*, 137-176.
- An, H. J. (2006). *Home violence experiences of immigrant women who married a Korean man through international marriage and those women's reaction to the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 Bienvenu, S. M. J. (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Family Coordinator, 19*, 26-31.
- Butterworth, P., & Rodgers, B. (2008). Mental health problems and marital disruption: Is it the combination of husbands and wives' mental health problems that predicts later divorce?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3*, 758-763.
- Byun, M. H., & Kang, K. J. (2010). Factors of married couples influencing the marital satisfaction of wives in 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5*, 127-141.
- ENRICH KOREA. (2005). *PREPARE/ENRICH counseling Manual*. Seoul: Author.
- Hong, D. A. G., & Chae, O. H. (2006). Family life and conflicts of female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5*, 729-741.
- Hudson, W. W. (1992). *The WALMYR assessment scales scoring manual*. Tempe, AZ: WALMYR Publishing Co.
- Im, G. H. (2004). *Study on the social welfare alternatives for the problems of interracial marriag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Daegu.
- Jeffrey, J. W., Rene, L. R., & Scott, C. R. (2004).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problems at home and school: The role of depressive/withdrawn parenting.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35*, 121-142.
- Jon, M. K. (2005). *A research and study on the actual life's condition of Korea foreign housewiv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Seoul.
- Jung, H. M. (2010). Domestic violence against immigrant women and its preventing system.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1*, 71-102.
- Kang, L. L. (2010). *Effects of ENRICH program on self-esteem, depression, marital communication, conflict solution styles and marital adjustment in low-income coup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 Kim, H. S. (2004). *The development of marital education program for conflict coup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hung University, Changwon.
- Kim, H. S. (2011). Impacts of social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on depression among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 women in Daegu and Kyungpook a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188-198.
- Kim, I. S. (2007). *Social work with families & healing spirituality*. Seoul: Hakmun Publishing.
- Kim, S. G., Kim, Y. G., Cho, E. J., Kim, H. R., Lee, H. G., & Seul, D. H. (2010). *2009 An investig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Seoul: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 Knudson, R. M., Sommers, A. A., & Golding, S. I. (1980).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mode of resolution in marital conflict. *Interpersonal Perception and Social Psychology, 38*, 751-763.
- Kong, S. S. (2005). A marital relationship enrichment program for couples: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5*, 991-1003.
- Kwon, B. S., & Cha, B. H. (2006). The impact of communication and cultural identity on marital satisfaction among Kosian housewives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58*, 109-134.
- Shin, G. H., & Yang, S. E. (2006). Marital conflicts of intermarried families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4*(5), 1-8.
- Sin, H. C., & Choi, J. A. (2011). The development and effectiveness of a marital counseling program for multi-cultural families in urban areas. *Korean Psychology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2011*, 186.
- Son, J. Y., & Baik, K. I. (2008). The efficiency of couple program for marriage immigrant family in Gyeongju. *Gyeongju Study, 17*(2), 5-34.
- Song, S. H., & An, H. J. (2011). Experience of child-rearing of filipino married immigrant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20*, 167-179.
- Statistics Korea. (2011). *Vital statistics of immigrants in Korea*.

- Daejeon: Author.
- Thomas, K. W., & Kilmann, R. R. (1974). *The Thomas-Kilmann conflict mode instrument*. Tuxedo, NY: XICOM.
- Uhm, D. C. (2010). Effects on couples' communication, intimacy, conflict and quality of life by foot massage between immigra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40*, 493-502.
- Whitton, S. W., Rhoades, G. K., Sanely, S. M., & Markman, H. J. (2008). Effect of parental divorce on marital commitment and confidenc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2*, 789-793.
- Won, Y. H. (2004). *The development and effect of training programs to improve the relationship of married couples with physical disab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ungsoong University, Busan.
- Yoo, M. S. (2010). Effects of a multi-cultural marital advocacy program based on empowerment model on self-esteem, self-efficacy, coping way and family stress in multi-cultural coupl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ternal Child Health, 14*, 145-160.